제주·수원FC '다이렉트 승격 티켓 전쟁'

두 팀 최소 2위 확보… 24일 25R 운명의 맞대결
PO 겨냥 팀들과 일정 남겨 놓고 총력전 불가피

올해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종료까지 4경기를 남기고 나란히 최소 2위를 확보한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1 '다이렉트 승격 티켓'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올해 K리그2는 코로나19로 기존 36라운드에서 27라운드로 축소됐다. 지난 주말까지 23라운드가 치러져 이제 시즌 종료까지 4경기를 남겼다.

K리그2 우승팀은 내년 K리그1으로 자동 승격된다. 2위 팀은 3~4위 팀 승자와 맞붙어 승격 여부를 타진한다.

3~4위 팀 간 대결은 11월 18일에 예정됐고, 3~4위 팀 대결 승자와 2위 팀은 11월 21일 맞붙을 예정이다.

K리그1에서는 이미 연고 이전 때문에 상주 상무가 내년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최하위 팀만 2부로 강등된다.

23라운드까지 수원FC(45골)와 제주 유나이티드(43골)가 나란히 승점 48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다득점 원칙에 앞선 수원FC가 선두를 탈환했다.

이런 가운데 3위 서울 이랜드(승점 34)와 1, 2위 팀들의 승점 차는 14점으로 벌어졌다. 남은 경기가 4경기뿐이라 수원FC와 제주는 나란히 이번 시즌 최소 2위를 확정했다.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없이 K리그1으로 승격할 수 있는 만큼 수원FC와 제주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두 팀의 일정도 험난하다. K리그2는 우승 싸움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4위 경남FC부터 6위 전남 드래곤즈까지 모두 승점 33으로 똑같지만 다득점 원칙에 따라 4위 경남, 5위 대전 시티즌, 6위 전남 드래곤즈 순이다. 3위 서울 이랜드도 승점 34로 4~6위 팀과 승점 1차라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수원FC와 제주는 24라운드부터 26라운드까지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들과 맞붙는 험난한 일정이다.

수원FC는 18일 24라운드에서 6위 전남과 맞붙고, 제주는 하루 앞서 4위 경남과 싸운다. 사실상 우승의 향방은 24일 수원FC와 제주의 맞대결이 치러지는 25라운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FC와 제주 가운데 24라운드 패자가 2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패하면 사실상 우승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수원FC와 제주는 24라운드부터 총력전 체제를 펼쳐야 한다. 26라운드도 수원은 경남, 제주는 이랜드와 맞서는 힘든 일정이라 단 한 경기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24~26라운드에서 수원FC와 제주를 만나는 팀들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걸린 터라 처절한 승부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최근 상승세의 임성재(왼쪽)와 한국선수들의 맏형 강성훈이 챔피언 도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네 번째 더CJ컵 '한국인 챔피언' 탄생할까

임성재·강성훈·김시우 선봉
2승 토머스는 타이틀 방어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CJ컵은 2017년 창설돼 작년까지 세 차례 모두 한국 제주 나인브릿지 골프클럽에서 치러졌다.

한국 땅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PGA투어 대회였다.

올해는 제주가 아닌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인근 섀도크리크 골프 코스(파72)에서 16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PGA투어 선수들의 국내 입국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만 미국으로 개최 장소를 옮겼다.

총상금 975만 달러에 우승 상금 175만5000달러로 PGA투어에서도 손꼽는 특급 대회인 더CJ컵에는 한국 선수가 11명이나 출전한다.

임성재(22), 안병훈(29), 강성훈(33), 김시우(25), 이경훈(29) 등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뿐 아니라 김성현(22), 김한별(24), 이재경(21), 이태희(36), 함정우(26), 그리고 신예 김주형(19) 등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타이틀 스폰서 CJ가 한국프로골프(KPGA)선수권대회와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4명, 아시안프로골프투어의 한국 선수 상금 1위 등 다양한 자격의 한국 선수 출전권을 부여한 덕분이다.

더CJ컵은 출전 선수가 딱 78명으로 제한된 인비테이셔널이지만, 한국 기업이 스폰서를 맡은 덕에 한국 선수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더CJ컵 우승은 지난 3년 동안 미국 선수 차지였다. 한국 선수들은 안방에서 손님 격이었다.

이 때문에 4년째를 맞은 더CJ컵은 이제는 한국인 챔피언을 배출할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상승세를 탄 임성재와 김시우, PGA투어 첫 우승이 간절한 안병훈, 그리고 맏형 강성훈이 선봉에 선다.

이들 4명은 모두 CJ 로고를 달고 PGA투어를 누비고 있어 이 대회 한국인 첫 우승을 따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도 지녔다.

귀국할 때 14일 자가격리의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출사표를 낸 김한별, 김성현, 이재경, 김주형 등 코리안 투어 신예 4인방은 큰 무대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태도지만 내심 '이변'을 기대한다.

한국인 우승자가 탄생하려면 이 대회 3차례 출전해 2차례 우승한 세계랭킹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를 넘어야 한다.

초대 챔피언 토머스는 작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토머스뿐 아니라 세계랭킹 1, 2위 더스틴 존슨(미국)과 욘 람(스페인), 세계랭킹 4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버거운 상대다.

PGA챔피언십 우승자 콜린 모리카와(미국), 잰더 쇼플리(미국)를 포함하면 세계랭킹 10위 가운데 1~4위를 비롯해 6명이 출전한다.

이밖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리키 파울러(미국),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조던 스피스(미국) 등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하다.

2018년 우승자 브룩스 켑카(미국)는 무릎 부상 치료를 마치고 2개월 만의 복귀 무대로 더CJ컵을 선택했다.

지난해 타이거 우즈(미국)와 필 미컬슨(미국)의 1대1 대결을 벌이면서 대중에게 처음 코스 모습을 공개했던 섀도크리크 골프 코스는 이번에 처음 PGA투어 대회를 유치해 나흘 동안 TV를 통해 속살을 내보인다. 연합뉴스

탬파베이 ALCS서 먼저 2승
최지만, 안타 없이 득점 1개

탬파베이 레이스가 7전4승제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 먼저 2승을 거뒀다.

탬파베이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ALCS 2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4-2로 눌렀다.

1차전에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탬파베이는 2차전에서도 승리하며 2008년이후 12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가능성을 크게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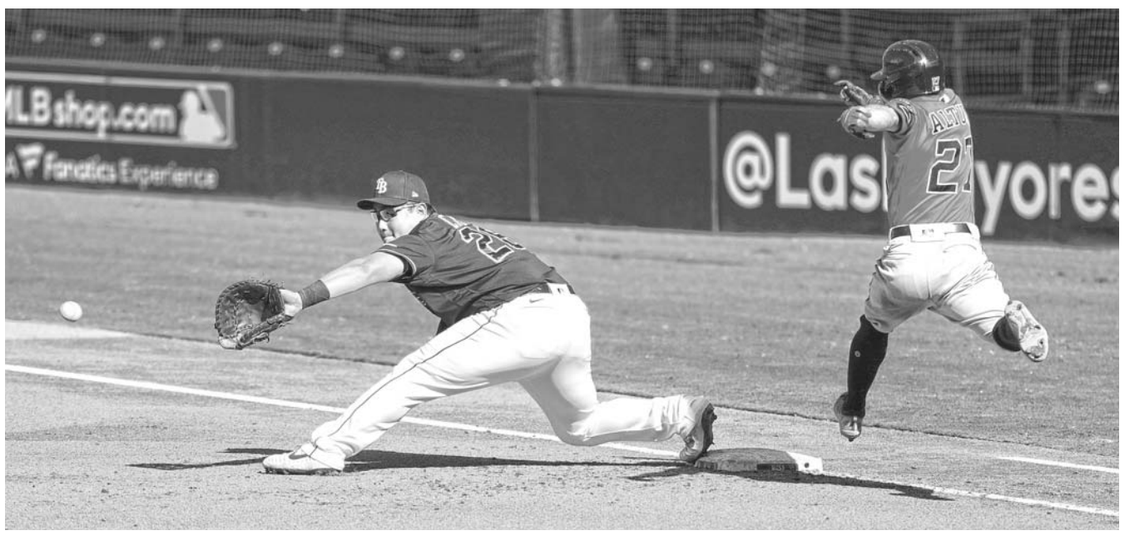
탬파베이의 한국인 타자 최지만은 생애 처음 치른 ALCS에서 4타수 무안타 3삼진에 그쳤지만, 행운의 득점 1개를 얻었다.

1차전에 결장한 최지만은 2차전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0-0이던 1회말 2사 1, 2루, 최지만은 2루 땅볼을 치고 1루로 뛰었다. 공을 잡은 휴스턴 2루수 호세 알투베의 송구가 1루수 율리에스키 구리엘 앞에서 튀었고, 구리엘이 공을 더듬어 최지만은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최지만은 마누엘 마르고트의 3점 홈런으로 홈을 밟았다.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ALCS 경기에서 기록한 행운의 득점이었다.

최지만은 3회와 6회, 8회에 모두 삼진을 당하며 ALCS 첫 안타는 다음 기회로 미뤘다. 연합뉴스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ALCS 2차전에서 1루수로 출전한 최지만(왼쪽)이 휴스턴의 호세 알투베를 1루에서 잡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17번째 시즌 17일 개막
대한항공·흥국생명 우승 후보
11월 초부터 유관중 전환 논의

겨울철 스포츠의 대명사인 프로배구가 오는 17일 오후 2시 남자부 우리카드-대한항공(서울 장충체육관), 여자부 현대건설-GS칼텍스(수원체육관) 경기로 6개월간의 레이스를 시작한다.

17번째 시즌인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녀 개막전은 지난 시즌 1, 2위 팀끼리의 대결로 편성됐다.

남자부 7개 구단, 여자부 6개 구단은 내년 3월 17일까지 정규리그 6라운드를 치러 '봄 배구'에 출전할 팀을 결정한다.

규정에 큰 변화가 없어 포스트시즌에 오를 팀의 자격도 예년과 같다.

남자부는 월요일, 여자부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전을 벌인다. 주말에는 남자부 경기는 오후 2시, 여자부 경기는 오후 4시에 각각 막을 올린다.

주중에는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나 11월 1일까지 1라운드 경기는 프로야구 정규리그 잔여 경기 중계 편성 관계로 남녀부 모두 주중에는 오후 3시 30분, 주말에는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전력에 큰 변동이 없는 대한항공과 세계적인 공격수 김연경을 11년 만에 다시 품은 흥국생명이 가장 강력한 남녀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남자부), GS칼텍스와 KGC인삼공사(여자부)가 두 팀의 독주에 제동을 걸 후보로 평가받는다.

프로배구는 우선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하고 11월 초부터 경기장 수용 규모의 25% 수준에서 관중이 입장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 11:55 숨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도도솔솔라라솔(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엄마가 바람났다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11:45 헬로카봇 9 리턴즈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45 위인극장 리턴즈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4:45 세미와 매직큐브 16:15 로빈 후드 16:30 딩동댕 유치원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트 펭TV 22:45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튜더뮤직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20 투페이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TV는 사랑을 싣고(재) 17: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17:30 꿀잼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치치핑핑 시즌2 12:50 뽀뽀뽀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 (재) 17:00 5 MBC 뉴스 17:15 테마기행 길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트 찬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JIBS 토크콘서트(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채선아의 가스펠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TV는 사랑을 싣고 21:30 도도솔솔라라솔 22:10 도도솔솔라라솔 22: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부 23:1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부 23:50 스튜디오 K	18:15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찬란한 내 인생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내가 가장 예뻤을 때 1부 22:00 내가 가장 예뻤을 때 2부 22:40 라디오스타 1부 23:40 라디오스타 2부	18:50 전국 TOP10 가요쇼(재)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트 찬스 1부 21:35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트 찬스 2부 22:05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트 찬스 3부 22:35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2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00 기후변화연구소 8:30 특별기획 '꿈꾸는 학교' 9:00 KCTV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특별기획 '꿈꾸는 학교' 13:10 KCTV 다큐스페셜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30 KCTV 시청자세상 17:00 KCTV 뉴스 17:40 VOD 길용우의 영화산책 18:00 기후변화연구소 21:00 KCTV 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4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갈 곳이 생긴다. 48년 독선적이나 자만은 금물. 주변의 지혜를 얻어 추진하라. 60년 자녀의 진로로 동분서주. 자금이 지출된다. 72년 자녀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 취업이 필요시 동북간 방향이 길. 84년 외출이나, 모임이 있다. 이성교제는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37년 마음이 먼저 분주하고 할 일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주변의 협력을 얻어라. 49년 이동 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언행자제 필요. 61년 경쟁심리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다. 피할 수 없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라. 73년 취업, 승진, 합격, 승인, 계약의 기쁨이 있다. 85년 나를 필요로 하면 봉사하라.

38년 몸이 나른해진다. 의욕을 갖고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한 발 뒤에서 내일을 계획, 준비함이 필요. 62년 자식에 대한 일. 가족간 의논할 일이 생긴다. 74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86년 할 일이 늘어나고 취업이나 학업의 기쁨이 있다.

39년 갈 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1년 집안에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드리면 좋다. 63년 귀인 도움으로 일은 해결되나, 부부애정 적신호. 75년 강한 의욕으로 업무는 추진하지만, 대인관계나 이성교제에 올인 하지마라. 87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떠오른다.

40년 자녀의 일로 고민 상의가 이루어지고, 부부간 언쟁조심을 하라. 52년 갑작스런 소식에 놀람이 있고, 주변인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64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 여유와 휴식 필요. 76년 자식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88년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이나 일은 기쁨 2배, 성과의 효율성은 배가 된다.

41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53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하다. 65년 농·수산업분야 아침부터 분주해진다. 77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름답다. 철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 89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42년 술과 인연이 많으니 운전 삼가. 54년 부부간 사소한 논쟁이 다툼으로 번진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 66년 문서운이 길하고 재물운이 있으니 계약, 매매, 인허가, 승인 관련 실익이 있다. 78년 금전상 이득이 있는 날. 미혼자는 지출이 커진다. 90년 친구와 다정한 대화가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43년 업무추진이 서서히 해결되니 대인관계에 만전을 기하라. 55년 동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마음은 강하나 차분한 계획과 점검이 선행. 67년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피곤하고 몸살기운이 있다. 79년 직업에 대한 갈등과 변화로 고민. 주변의 협조를 구하라. 91년 화냄은 내게 해가 되니 건강관리에 우선하라.

44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매매나 가게 등 처분 시 해결된다. 56년 자식문제로 가정불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장 업무로 스트레스. 68년 과다한 기대나 언동은 금물. 신중함이 필요하고 기대하지 마라.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와 언쟁이 있고 다툼이 생긴다. 92년 원칙에 충실하면 인정받는다.

45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건이 있다. 57년 정도를 지켜 나가면 명예나 부가 따르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다. 69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른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81년 부모님,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발생한다. 93년 운이 호조되고 몸이 분주하나 건강은 유의.

46년 절도있는 행동과 인간관계에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58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 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을 둬라. 70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82년 친구간 논쟁 또는 경쟁하면 상대에게 패하거나 사이가 아주 멀어진다. 94년 구매 충동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47년 자녀가 소식을 전해오고 용돈이 생기는 날. 59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는 자제가 필요. 71년 집안 어른께 우환이 올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를 드려라. 83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교제 길. 95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